

# “글로 삶의 길 밝힌 이청준, 내 소설의 지향”



20 이승우 작가

‘심판’ ‘지하생활자의 수기’ 등  
습작기 시절 읽은 책 인상적  
‘지상의 노래’ 올 동인문학상

장흥 출신 작가 이승우(54·조선대 문창과 교수). 그는 목직인 주제의식을 형상화해온 소설가다. 그 만큼 진지하게 초월의 세계를 다루어온 작가도 드물다. 사유와 종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다분히 형이상학적이고 분석적이다.

이승우 작가는 올해 동인문학상(상금 5000만원)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지상의 노래’. 그는 조선대학교 문창과에서 13년째 소설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이승우 작가가 언제쯤 동인문학상을 받을 것인지 내심 기대를 했었다.

최근에 이 작가를 만났다. 초겨울에 접어드는 캠퍼스는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와는 달리 차분했다.

“나는 도전한 적이 없다. 그보다 해년마다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안됐다는 게 더 대단하다.(웃음)”

그는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자존감을 그렇게 돌려 말했다. 언제 보아도 그는 현실에서 한발 비켜선 수도사나 목사 같은 분위기가 난다. 작품은 작가를 닮는다는 말은 이승우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른다.

이 작가는 1981년 ‘에리직톤의 초상’으로 문단에 나온 이후, 32년간 소설이라는 한 우물을 파왔다. 그동안 17권의 장편소설과 소설집, 산문집과 동화집까지 합하면 족히 30권이 넘는다. 상복도 많아 대산문학상(1993), 동서문학상(2002), 현대문학상(2007), 황순원문학상(2010)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신학공부를 했기 때문에 작품에 기독교적 세계관

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싶다. 나는 다만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문화적 관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그가 인간과 신의 교량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1981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만났던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보게 된 그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다. 인간이 ‘신’(신의 대리자인 교황)을 폭행하는 사건은 그에게 종교와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한다. 데뷔작 ‘에리직톤의 초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작고한 이청준(1939~2008)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나무위에서 잠자기’를 읽으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동향 선배인 이 청준은 내 소설의 지향이자 인생의 사표와도 같은 분이다.

‘나무위에서 잠자기’는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나무 위에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현실의 침대 속에서도 잘 수 없도록 의식을 간섭한다는 내용이다.

이승우 작가는 카프카의 ‘심판’, ‘변신’도 읽을 수 없는 소설이라고 말한다. 전자가 보이지 않는 법과 체제에 의해 억압 받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리고 있다면, 후자는 벌레로 변해버린 인물을 통해 인간 내면에 드리워진 고독과 실존의 문제를 다룬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도 실존과 소외의 문제와 직결된다. 삶의 불안과 증오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철저히 고립된 도피처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몸부림친다는 내용이다.

넌리 알려진 대로 이 작가의 고향은 장흥이다. 송기숙, 한승원 작가와도 같은 고향이다. 많은 이들은 장흥의 지리적인 배경이 결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그치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만약 지리적인 요인이려면 왜 지금은 30·40대 장흥 출신 작가가 없는가”라고 묻는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삶을 매개로 서사화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란단다.

“초등학교 때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자의식의 과잉, 세상과의 불화는 결국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

‘생의 이면’ ‘미국에 대한 추측’이 유럽과 미국에 번역된 작가, ‘식물들의 사생활’이 한국소설 최초로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 플리르 시리즈 목록에 올랐던 작가...

그는 “더 오래, 아주 많이 소설을 쓰겠노라”고 말한다. 이승우의 이름에 붙여질 다음의 수상들이 급급해진다.

/박성천기자i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왕가위 명작의 감동 다시 한번

광주극장, 12~18일 특별전

‘왕가위 스타일.’

1987년 ‘열혈남아’로 데뷔한 왕가위 감독은 다른 어떤 감독과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 장국영과 양조위가 주연을 맡은 ‘아비정전’을 거쳐 ‘중경삼림’, ‘타락천사’, ‘화양연화’로 이어지는 그의 작품들은 국내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영화팬들을 흥분시켰다.

광주극장은 12~18일까지 왕가위 감독의 대표작 5편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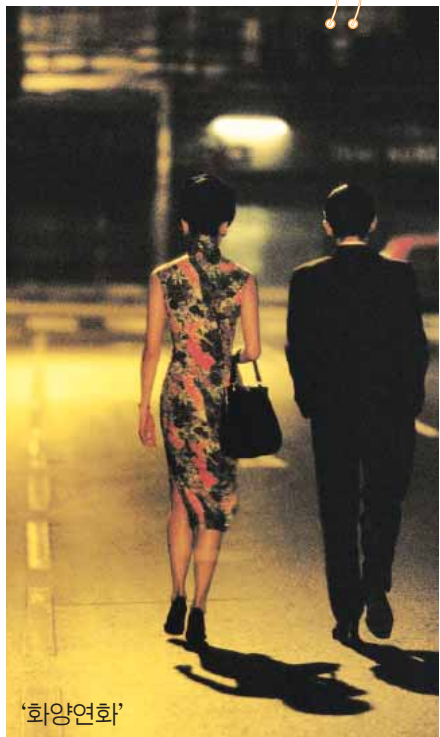
양조위와 왕정문·금성무가 주연을 맡은 ‘중경삼림’(1994)은 왕가위 신드롬을 가능케 했던 작품이다. 홍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는 명대사를 탄생시키며 많은 이들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동성애라는 과격적인 소재를 아름답고 매혹적인 깊은 슬픔으로 조명,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해피 투게더’(1997), 양조위의 우수 어린 연기와 장만옥의 절제된 연기가 인상적인 칸영화제 남우주연상과 최우수예술성취상 수상작 ‘화양연화’(2000) 등을 만날 수 있다.

최근작으로는 엽문 등 무림 고수들의 삶과 사랑을 그린 양조위·장쯔아·송혜교 주연의 ‘일대종사’(2012)를 만날 수 있다. 한편 14일 오후 3시 ‘동사서독 리더스’ 상영 후에는 주성철 씨네21 기자가 ‘왕가위 감독의 영화 세계와 배우 장국영’을 주제로 씨네토크를 진행한다. 상영작 소개 및 시간표는 <http://cafe.naver.com/cinemawangju/8269>,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양연화’

## 고봉 기대승 선생 사상의 향훈

연우회서예전, 12~18일 금호갤러리

학정 이돈흥 선생 제자들로 구성된 연우회(회장 학산 김종태)가 12~18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2층 금호갤러리에서 ‘제37회 연우회서예전’을 갖는다.

올해는 ‘빙심설월(氷心雪月)’,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신과 사상의 향훈(香薰)을 기리며’라는 주제로 광주가 낳은 성리학의 대가이자 문장가인 고봉 기대승 선생의 시문을 작품화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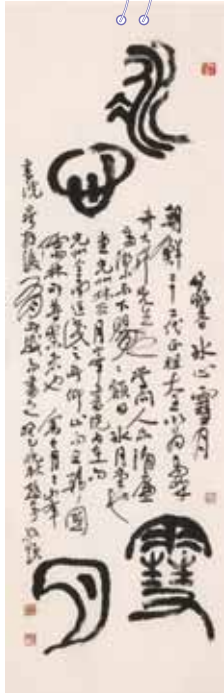
120여명의 회원들은 기대승 선생의 시문을 전·예·해·행·초서 등 서체와 한글·문인화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는 기대승 선생의 학식과 인격을 ‘빙심설월’이라 일컬었다. 광주시 광산구 임곡리에 있는 월봉 서원 안에 있는 빙월당도 여기에서 따왔다.

특히 그가 스승처럼 모셨던 퇴계 선생과의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辯)’은 조선유학사상에 깊은 영향을 준 논쟁으로 유명하다.

연우회는 중국 요녕성, 사천성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08년에는 북경대학 서법예술연구원 서예가들과 ‘한·중서법교류전’을 열기도 했다. 전시 개막식은 12일 오후 5시다. 문의 062-360-8437.

/김경민기자 kki@



이돈흥 작 ‘빙심설월’

## 서용좌 작가 ‘광주문학 올해의 작품상’

광주문인협 내일 시상식

광주문인협회(회장 노창수)가 주최하는 제26회 광주문학상 시상식과 제6회 광주문학올해의작품상 시상식이 12일 오후 6시 용산동 삼영웨딩홀에서 열린다.

광주문학상 수상자는 시 부문 조숙형·이준배 시인이, 시조 부문 김산중 시인이, 수필 부

문에는 탁현수 씨가 선정됐다. 그리고 광주문학올해의작품상 수상자는 서용좌 작가(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작품은 ‘광주문학’ 66호에 실린 ‘포이동 266번지’.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시상낭송 및 광주문학인의 밤 행사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227-0811.

/박성천기자iskypark@kwangju.co.kr



조숙형씨



이준배씨



탁현수씨



김산중씨



서용좌씨



###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
|------------------|------------------|
| 본점 062)227-9940  | 총장점 062)227-9970 |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 2013년 송년 디너쇼

# 남진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

— 프로그램 —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